2024

10

소그룹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1 첫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에스겔 3:1-11**

먼저 말씀을 먹으라

새191장(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주인 삼은

여는 질문

지금껏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잘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부분을 함께 나눠 봅시다.

본문 이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말씀을 전해야 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겔 2:10)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패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면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는 그 맛이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된 인생에 필요한 당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듣거나 보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수준'이 아닌 '먹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 먹는 그것이 내 몸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고 일어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정의하는 곳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말이 다른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그들이 말씀을 먹기는커녕 들으려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에스겔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실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한 번 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들은 그대로 다시 전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만 일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과 '먹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절, 겔 2:8)

삶 속으로

-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벧전4:8)이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암송 구절 | 에스겔 3: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녀와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 위해 내가 먼저 내려놓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니?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에스겔 4:1-8**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새301장(통460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는 질문

일상에서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 가운데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말씀을 전해야 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겔 2:10)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패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면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는 그 맛이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된 인생에 필요한 당분과 예루살렘의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안은 아무 맥락 없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시 127:1)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는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릇된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줄 모르는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실물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눕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은 누운 상태로 꼼짝 못 하게 줄에 묶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평안하고 자유롭던 그것이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운명으로 임할지 징조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평안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한 기간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이 결박된 것과 다름이 없는 포로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평안도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특이한 행동을 통해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워 꼼짝 못 하는 모습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은 스스로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백성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백성의 장래를 보여 주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지를 때에 당장 별일이 없다고 그것이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 징계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 에스겔은 북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드러내고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남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자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있었습니다. 각각의 날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6절)

•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봅시다.

삶 속으로

• 내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상은 '가장 소중한 것들'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암송 구절 | 에스겔 4:8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녀와 나눔

나에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에스겔 10:18-22**

누가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나

새270장(통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여는 질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있어도 될 것과 없어도 괜찮은 것을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본문 이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의 동편 입구에 머물렀습니다. 동문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뜰에 있는 성전 입구입니다.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절대적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닌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이 관영한 곳에 머무르실 수 없어서 떠났고 이는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솔로몬 성전에만 계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성소라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면 떠나십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명목상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두렵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호된 질책과 징계를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천혜의 요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루살렘은 곧 파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시

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피해야 할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곧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 속으로

•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상상해봅시다. (18절)

•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봅시다. (창 26:3, 창 31:3)

삶 속으로

•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롬 12:2)

암송 구절 | 에스겔 10:18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녀와 나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떨 것 같으니? 엄마, 아빠를 떠나 살면 어떨 것 같으니?

4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에스겔 16:1-14**

하나님의 은혜

새295장(통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는 질문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봅시다.

본문 이해

본문은 15장의 비유보다 직접적이고도 강한 이미지를 써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약한 아이, 특별히 여자아이의 경우 출생 직후 버려지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버려진 여자아이로 비유되는데 아모리와 헷 사람을 이스라엘의 부모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자아이처럼 예루살렘은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의 모습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였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적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비참하게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죽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들풀처럼 자라 아름답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옷으로 덮는 행동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경우처럼 결혼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룻 3:9)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키우시고 그와 결혼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 54:4-5)

우리는 과거에 당한 비참한 상황뿐 아니라 그때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어려웠던 과거에서 상처받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구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주시고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해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비교하여 생각해봅시다. 사랑의 대상인지, 경쟁의 대상인지 또 어떤 시선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4-6절)

-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봅시다.

삶 속으로

-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눠봅시다.

암송 구절 | 에스겔 16:6b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자녀와 나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 줄 때 가장 좋니?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겠니?